

교  
가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 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 東南高同窓會報

발행인: 趙大濟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9-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TEL: (051) 245-7551 ~ 3, FAX: 245-7550  
인쇄처: 當山日報社  
在韓總部: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45-20 동부빌딩 504호  
T: (02) 783-0071 ~ 2 F: (02) 783-0073



3월 17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조대제 본부회장 초청 동기회 회장 및 총무단 간담회, 조 회장과 동기회장·총무단 대표가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 “용마가족 대동화 재현 추진 박차”

조대제 본부회장, 동기회장—총무 간담회서 밝혀

본부동창회는 조직강화와 동문유대 촉진을 위해 △회장단 회의의 활성화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민주적인 운영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한 기금절약 및 합리적 활용 △전산망 구축을 통한 인터넷 활성화 △각 동기회 및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회장·총무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등 4대 운영방향을 재확인했다.

조대제 본부회장은(7회·협성개발 대표이사) 3월 17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화라정’에서 본부회장 초청 각 동기회장·총무 상견례를 겸한 연석간담회를 열고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이같은 본부의 4대 운영방향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사회 최득호 사무국장·11회).

조 본부회장은 특히 집행부가 지혜

를 융집시켜 소강상태에 빠진 동창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해 용마가족의 대동화를 재현할 것이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본부홈페이지([www.kyungnam.or.kr](http://www.kyungnam.or.kr))속에 각 동기회·지역회의 홈페이지도 포함시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조 본부회장은 이어 주요의제 심의를 주제하고 제26대 집행부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각 동기회는 본부회장(제8~33회 각 2명) 및 본부이사(제1~6회 각 3명·제7~34회 각 5명·제35~42회 각 3명) 추천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또 총무부의 4월 발행을 위해 각 동기회에서 책임광고를 조속히 마감시켜 줄 것과 미수금 정리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직강화 위한 4대 실천과제 확인

회장단회의 활성화  
예산 긴축 집행  
인터넷 구축  
참여 분위기 제고

〈부산9명〉 유홍수(11회)  
정문화(13회)·정형근(17회)  
허태열(18회)·권철현(19회)  
김형오(20회)·김무성(24회)  
박종웅(25회)·엄호성(28회)  
〈경남3명〉 나오연(6회)  
박희태(11회)·김기준(12회)  
〈진남1명〉 정철기(13회)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동문 13명(부산9·경남3·전원 한나라당·전남1명·민주당)이 당선됐다.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더 한층 빛낸 이번 영광은 당선 동문들의 선전과 용마가족들의 성원이 ‘용마정신’으로 승화된 결과다.

부산(선거구 17곳)에서는 유홍수(柳興洙·11회·수영) 동문을 비롯, 정문화(鄭文和·13회·서구)·정형근(鄭亨根·17회·북·강서갑), 허태열(許泰烈·18회·북·강서을)·권철현(權哲賢·19회·사

상)·김형오(金炯旿·20회·영도)·김무성(金武星·24회·남구)·박종웅(朴鍾雄·25회·사하을)·엄호성(嚴虎聲·28회·사하갑)동문 등 9명이다.

또 경남(선거구 16곳)에서는 나오연(羅午淵·6회·양산)·박희태(朴嬉太·11회·남해·하동)·김기준(金淇春·12회·거제)동문 등 3명, 특히 정

철기 동문(鄭哲基·13회)이 전남 광양구례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 당선돼 이채를 연출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총의석 273석 중 제1당을 유지하게 된 한나라당 133·민주당 115·자민련 17·민국당 2·신한국당 1·무소속 5석이다.



## ‘용마테니스’ 4월 30일 신평코트서

### 신임회장 정형근(19회)

제25회 기별대항 용마테니스대회가 4월 30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레포츠 타운’ 테니스장에서 개최된다.

용마테니스회는 3월 21일 오후 7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어민초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정형근 동문(19회·부산시 체조협회 전무이사·사진)을 선임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제25회 대회를 4월 30일 오전 8시 신평레포츠타운 테니스코트에서 입장식에 이어 대전 등 내용의 대회운영안을 의결했다.

△대회고문=권오현 김근준 정수봉(이상 1회) 정소영(6회·본부 직전 회장)

△명예대회장=조대제(7회·본부 회장)

△고문=한동대(9회) 김종수(12회) 손송방(16회) 이향우(18회)

△대회집행위원장=이향우(18회)

△대회장=정형근(19회·용마테니스회 회장)

△부회장=백홍기(19회) 김한원 박용호(이상 20회) 강석철(25회)

△총무이사=김상현(26회) 조광제(28회)

△상임이사=박광용(25회·경기) 최병무(26회·홍보) 김태완(28회·심의) 김정유(28회·기획) 김준연(28회·의무) 이병훈(32회·재무)

△비상임이사=각 동기회 회장

\* 연락처: 김상현 사무국장 246-2581·핸드폰 017-543-2584·팩스 264-2580.

## 경 동창회장기쟁탈 제25회 용마테니스대회 축

일 시: 2000년 4월 30일(일) 08:00  
장 소: 신평레포츠

(지하철 신평역 건너편)

경기부문: 각 기수 별 3 복식

20회 이하는 연합팀 가능

연락처: 회장 정형근(19회)

011-9537-2000

총무 김상현(26회)

051-264-2581,

017-543-2584

대회고문

권오현(1회)

김근준(1회)

정수봉(1회)

정소영(6회)

명예대회장

조대제(7회)

테니스회 고문

한동대(9회)

김종수(12회)

손송방(16회)

이향우(18회)

대회장(회장)

정형근(19회)

부대회장(부회장)

백홍기(19회)

김한원(20회)

박용호(20회)

강석철(25회)

대회집행위원장

이향우(18회)

총무이사

김상현(26회)

조광제(28회)

상임이사

박광용(25회·경기)

최병무(26회·홍보)

김태완(28회·심의)

김정유(28회·기획)

김준연(28회·의무)

이병훈(32회·재무)

비상임이사

각 동기회 회장





# 홈커밍 축제 “모교에 총집결”

제14회 5월 13일

노수덕 회장 유임  
‘뽀빠이 이상용’ 사회

한 후 임원개선을 통해 노회장을 유임시켰고 박종철 김화옥 동문을 감사로 선임했다.

졸업 40주년 행사 2부 여홍은 기념식에 이어 오후 6시30분 호텔롯데 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뽀빠이 이상용’의 사회로 진행되고, 은사(중·고) 14명이 초청될 예정이다.

제24회 4월 29일

서정대 조직위원장 주재  
행사준비 중간 평가회

제24회동기회 졸업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행사가 4월29일 오후 2시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의 기념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홈커밍데이행사준비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서정대 조직위원장

마산창원지역동창회의 숙원사업인 전용사무실이 동창회 창립 30년만에 마련돼 경사의 뜻을 나눴다.

이수창 회장(17회·남광석유 대표·창원상의 부회장)은 4월1일 경남 창원시 내동 456-12 공단쇼핑상가 224호에서 회장단 및 수많은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식을 주재했다.

‘용마가족 사랑방’인 이 사무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 임원이 주 단위 당면제로 교대봉사근무를 하고 있다.

용마가족의 축하 속에 문을 연 사무실은 ▶이수창 회장(17회·

## 馬昌지역동창회 ‘사랑방’ 열어

30년 숙원 실현

간이쇼파1점) ▶이선험(17회·제단식 책꽂이 1점) ▶정승수(19회·3단 필박스 1점) ▶강상대(22회·카메라 1대 및 바둑판 1세트) ▶정명수(34회·회의용 테이블 및 책걸상세트) ▶박정수(34회·대형 화분 1점) ▶제19회(회장 박상식·벽시계 1점) ▶제33회(회장 김재룡·대형거울 1점) 등이 기증한 각종 집기로 꾸며졌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의 능률 극대화를 위해 중고컴퓨터와 복사기, 음성전화기 등을 동문들로부터 사려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 사무실 : (055)284-5733·FAX검용.

## 조직 활성화 기대 … 전신망 구축의 달인

朴良祖(19회)

### 재경 사무국장 발탁

재경동창회 신임 사무국장에 박양조(19회·사진) 동문이 발탁됐다. 박동문은 평소 동기회는 물론 재경동창회 총회·기별야구대회 등 여홍이벤트에서 사회를 맡는 등 솔선 참여해 왔고 유대성과 업무관리 능력이 뛰어나 재경의 조직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EC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1기)한 박동문은 현재 성하정보통신(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증권업계 등 전신망 구축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동문은 대학 졸업 후 대한항공시스템부에 입사했다가 한국증권전산(주)으로 옮겨 16년간 근무하면서 상무이사까지 됐다.

박동문은 특히 한국증권전산 재임시에는 상업은행(현 한빛은행 전신) 창구 온라인 시스템, 증권 시세정보 자동조회 단말기, 국내 모든 증권회사 고객계좌 관리 및 주식매매 주문전달시스템, 쿠웨이트 증권거래소 종합온라인 등 개발을 달성했다.

실명거래추진위 증권반장, 주가지수선물입주추진위 자문위원, 정보통신사업자협의회(삼성 등 10개사) 회장 등 역임.

## 용마펜클럽 “재충전” 기반 확충에

### 신임회장 김재봉(17회)...부회장 9명으로 늘려 봄·가을 등산대회 열고 정기회 격월제 개최

재경 언론계 동문들의 모임인 ‘용마펜클럽’은 3월9일 서울 ‘종로한일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 2년의 새 회장에 김재봉 부회장(17회·문화일보 논설위원·사진)을 선출했다. 또 부회장을 9명으로 대폭 늘려 임경록(연합뉴스 인터넷본부장) 김세환(효성 홍보상무·이상 18회) 구본홍(MBC 해설주간·관훈클럽 총무·20회) 박인협(부산일보 서울지사장·21회) 김만오(세계일보 부국장대우 제작부장·22회) 강상대(조선일보 편집부국장·23회) 한진수(동아일보 부국장·23회) 조정민(MBC 보도제

작부장·23회) 박성득 동문(한겨레신문 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23회)을 각각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김수인 총무(스포츠조선 부장·27회)는 유임됐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결의를 다지는 전체모임을 오는 4월18일 오후 7시 종로한일관에서 개최하고, 2개월마다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라며 “동반 대회를 봄·가을로 개최하는 등 모임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14회)이 정기총회 후 2차에 합류, 정답을 나눴다.

중앙대 신문학과를 나온 김재봉 회장은 중앙일보 사회부차장·세계일보 사회부장 및 부국장·문화일보 사회부장·부국장·국장대우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3개 신문의 창간 사회부장부를 맡는 진기록을 남겼다.

### 제36회 최승호 회장 유임

제36회동기회는 3월24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석회그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승호 회장(허종범법률사무소 사무장·사진)을 유임시켰다.

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를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최 회장은 한동훈 동문을 총무로 임명했다.

## 제16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문  
車相邊太宋圭曹吉金梁聖潤  
秦基茂根相進利憲福述敏昭晶  
榮現和政宇吉字操旻昭吉

辛泰圭  
鄭成基  
玉茂雄  
李武根  
張相進  
韓利憲  
權福述  
朴敏昭  
洪晶吉

회장  
李伯齊  
金茂光  
卞相明  
鄭秀炳  
감사  
黃圭禎

총무  
楊正德  
姜永錫  
金鑽汶  
金永佑  
金太洙  
朴龍一  
申周平  
沈冕燮  
徐高明  
余聖國

尹世震  
李吉弘  
李孟立  
李邦昭  
李明洙  
李雨宰  
玉連洙  
鄭泰拾  
趙雲一  
尹孝柱  
盧祥鉉  
崔正日

지역이사  
李均五  
(대구지역)  
崔鉉佑  
(마산지역)  
孫龍錫  
(울산지역)  
河朱烈  
(진주지역)

황병주 회장은 최근 회장단회의를 열고 모교 졸업 후 처음 개최하는 홈커밍데이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위원장에 서영화 박창수(재경)동문을, 간사에 천현욱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신앙적 교제로 모교–동창회 발전에 기여”

## 부산기독동문 첫 만남

부산지역 기독교동문들이 신앙적인 교제와 사랑의 나눔을 통해 모교

와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처음으로 한자리(사진)에 모였다.

‘경남중고기독동문모임’이 3월 13일 오후 7시 부산 YMCA에서 ‘21회 신우회’(회장 박자민 동문·장로) 주관으로 열렸다.

제 5~32회 기독동문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의 제1부 예배는 서우민 동문(13회·장로)의 기도와 도명세 동문(23회·백제교회 목사)의 ‘경남중고교 기독인의 정체성’에 관한 설교, 이종승 동문(16회·신광교회 목사)의 축도 등 순으로 이어졌다.

또 2부 친교의 시간에는 동문간 자기소개 및 친교에 이어 21회 신우회의 총무인 성정근 동문(영도중앙교회 집사)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각 동기회별로 신우회를 결성하며 연 1회 전체 기독동문 정기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모임은 진도영 동문(5회·호산나교회 장로)의 모교 및 동창회의 발전과 동문 유대강화를 위한 기도에 이어 교제제창을 끝으로 폐회했다.

### 심두수 신임회장 선임

제20회 집행부 새로 구성

제20회동기회는 3월 16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팔성관광 4층 동기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심두수 동문(에스에스 대청 이코노숍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김대원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심 신임회장은 장춘식 총무를 유임시켰다.

총회는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기독동반 체육대회 결 야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 29회 클럽 활동 “왕성”

이구등산회는 3월 12일 동문-가족이 정답게 부산 기장군 구곡산을 등반(사진)했다.

이 모임은 최문성 회장과 열성적인 홍봉택 총무의 노고에 힘입어 회원수가 늘고 있다.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가족동반 산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수 20명.

이구비둘회(형석회)는 재경 용마기우회대회 2연패로 최강을 자랑하는 바둑회. 매달 세째주 일요일 오후 2시 부산 서면 태화기원에서 정기모



임이 열리고 있다. 회장 김민호·총무 정길 동문이 맡아 수고하고 있다. 회원수 22명.

이구골프회는 매달 둘째 목요일 새벽에 개최되며 회장은 오세용동문이 맡고 있다. 회원수 15명.

## “거제 가라산 산행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

## 5월 21일 ‘부부氣血’테스트

### 신임회장 정량부 선임

제17회동기회는 3월 14일 오후 7시 부산 서구 대신동 ‘산정농원’(13회 이범경 동문 운영)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량부 회장(동의대 건축공학과 교수·사진)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이사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부회장 및 이사 선임 △5월 21일 거제도 가라산 부부동반 산행(통영 임병화 동문 초청) △송별회 없애고 신

년회겸 정기총회 개최 등 주요 의제를 의결했다.

한편 동기회는 2월 9일 오후 7시 자갈치 ‘호포횟집’에서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박가식 회장 주재로 2000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량부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총회는 집행부 구성과 예산안은 첫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 용마이칠馬昌會 날로 활성화

### 월례회는 명절분위기

이날도 20명의 회원 중 17명이 모여 높은 참석률을 과시했다. 지역회는 매달 27일(토·일·월인 경

우 화요일에 집회) 모임을 갖는데 항상 15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곳 월례회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 즐기는 명절 같은 분위기다.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을 모은다.

특히 이날 동기회보 제작을 맡아 수고하는 부산의 김현수 동문을 특별초청, 싱싱한 생선회 등을 대접. 김홍근 동문도 덤으로 재미를 봤다.

## 가족동반 야유회 준비

### 김용호 등대회장 유임

등대회(부산지역 해운·항만·수산 등 관계동문 친목단체) 정기총회가 3월 17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서울까두기’에서 열려 김용호 회장(14회·용호선박 전무이사·사진)을 유임시켰다.

김용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에는 제10~49회의 동문 65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결속력이 더욱 강화됐다”며 “현신과 참여의 열정을

계속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명단 정리 △가족동반 야유회 계획 등 주요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곽정출(11회) 김광일 박찬종 동문(이상 12회)과 국회의원인 정문화(13회) 김무성(24회) 박종웅 동

문(25회) 등 16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계 동문들이 참석해 뜻을 깊게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총무에 노경보(33회), 부총무에 채인석 동문(35회)을 각각 임명해 살림을 맡겼다.

### 거제지역 정기총회 개최 … 윤용남(14회) 새 회장에

거제지역동창회는 3월 17일 오후 7시 경남 거제시 거제수협 3층 코리아나비페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열고 윤용남 동문(14회·육포초등학교 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조규태 회장(14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국회의원 김기준 동문(12회)

을 비롯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회장인사와 김 동문의 축사에 이어 결산보고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윤용남(14회)  
△부회장=서수홍(16회) 이봉구(20회)  
△감사=배종현 김용진(이상 33회)  
△총무=이영철(34회).

## 제34회동기회 HOME COMING DAY 개최

졸업20주년을 맞이하여 정겨운 모교에서 우리에게 꿈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들을 모시고 축제와 우정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동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석바랍니다.

\*공지사항  
· Home Coming Day 행사  
· 청금 구좌  
부산은행 097-01-011733-3(경남고 34회 동기회: 조자영)  
문의: 정현숙 간사  
051-469-3630, 011-889-2315  
· 34회 Home Page 구축  
<http://user.cholian.net/~bluepant/>

행사준비위원장  
서영화

간사  
정현숙

재경준비위원장  
박창수

회장  
황병주

수석부회장  
이재완

부회장  
김기대  
김두섭  
김용호  
김인호  
류세호  
박서호  
오송대  
임용철  
정현숙  
채한봉  
한윤모

고문  
류송우  
서영화

감사  
이종광  
조자영

총무  
조남훈  
박기훈  
박영관

이사  
김중근

김지한  
김변이  
이정진  
조성진  
한성진  
수우진  
황정진  
성진차

재경회장  
박창삼

총무  
남해원

위원  
박창주

이중식  
임영호  
이진호  
김동건  
김진진  
김상균  
김태완  
김문옥  
박영훈  
배명수  
석원혁  
윤종임  
조학래  
최상철  
허진훈

## 마음은 항상 ‘콩밭’에

### 정효진

(33회 이형근 동문 부인)

부인석

내 남편은 ‘황금의 손(?)’을 가진 사나이다. 하늘이 점지하여 경남중(당시 토성중)·고 33회를 졸업했고, 더우기 경남학원에서 1년간 특대된 성골(聖骨)출신.

80년 이후 줄곧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학연 지연 혈연을 뛰어 넘고자 노력하여 친구 중에는 호남 출신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경남’·‘야구’·‘용마’·‘구덕산’ 등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 빠 마디마다 모교에 대한 사랑과 긍지가 배어 있다.

남편이 교사로 근무하는 경기 고에서는 25년 넘게 신입생들이

지 않아 남편은 화장실 간다는 평계로 몇 번씩이나 우리 응원석 쪽으로 왔음은 물론이다. 그날 경기고 선생님들은 “이형근, 저 사람 병원에 가야 되는게 아니야? 화장실을 왜 저리 자주 가는거야?” 결국 경남고가 우승을 했고 남편은 며칠간 학교에서 벌주를 사야만 했다.

이러한 남편이 99년 5월 1일 토요일 졸업 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에 빠질 리가 없다. 나는 남편의 박봉을 쪼개고, 내 머리도 잘라 만든 돈(?)으로 전기족이 부산행 열차에 올랐다. 100여명의 동기생 가족들은 이미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느꼈다.

부산역에 달자 환영단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일행은 2대의 대형버스에 분승하여 구덕산 자락에 있는 경남고 교정에 도착했다. 좋은 자연 환경과 유명한 원형교사(德馨館) 등 명문학교의 숨결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기념식이 열린 국산관에서는 22분의 은사님, 400명이 넘는 동문 가족들이 자리를 매웠다. 흥분의 도가니 속에 기념식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뒤풀이에 흥뻑 찾았다.

학급별 사진 촬영 시간에 나는 가슴 한 편이 찡하게 울려왔다. 사진 촬영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 곳곳에서 희끗희끗한 머리가 눈에 띠 때문이다. 아, 벌써 20년이 지났나!(나는 남편과 동갑이다) 그날 밤 해운대에서 광란의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뒷날 부산 동문들이 마련한 푸짐한 회로 점심을 먹은 뒤 즐겁고 따뜻한 마음을 새기며 서울로 되돌아왔다.

내가 남편 주변에서 만난 용마들은 이렇듯 활달하고 각 방면에서 재능을 다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실력자가 되시길 두손 모아 기원한다.



# 체육대회 5월 11일 열기로

馬昌지역동창회 총회 … 이수창 회장(17회) 유임

## 이경재(13회) 용마대상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3월 23일 오후 7시 경남 창원시 중앙동 올림피아텔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수창 회장(17회·남광석유 사장·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유임시키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이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74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유공동문 표창에 이어 주요의제 심의를 통해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오는 5월 11일 도민사격장 잔디구장에서 가족동반 체육대회를 개최하

며 △골프회를 구성(추진위원장 김영환·15회)하기로 의결했다.

이수창 회장은 유공동문 표창에서 이경재(동문·13회·동진분석연구소 대표)에게 용마대상을, 정승수(19회·축협 경남회 상무이사) 오민일(동문·31회·고려화학 경남지점장)에게 공로패를, 박현수(동문·20회·마창경인 회장)과 제27회동기회(회장 김종하·치과의원장)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특히 총회는 임원개선에서 고문에 안종무(6회) 안사중 조영주(이상 7회) 목윤성(8회) 유금렬 김영국(이상 9회) 이기돈(동문·10회)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마산창원지역동창회 2000년 정기총회. 유임된 이수창 회장이 용마대상의 대동대길을 촉구하고, 학과 갈속을 축진하는 가족동반 체육대회를 오는 5월 11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영규(12회) 이경재(13회) 김관(14회) 이성인(동문·16회)을 자문 또 회장을 역임한 하영수(10회)

## 재경8회 클럽별 활동

### 새 천년 첫 티샷

### 우승 박재범·정수자 차지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이창근) 2000년 첫 모임인 87회 월례회가 3월 2일 안성C.C에서 22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남자부는 우승 박재범(85타 4언더)·준우승 김영기·3등 박지병·행운상 추경석 동문이 차지했다. 또 여자부는 우승 정수자(97타 5언더)·준우승 문경희·행운상 장은아씨가 각각 차지했다.

### 9명의 동문 태백산 올라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 동문 9명은 1월 28일 오후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태백역으로 출발, 다음 날인 29일 태백산(1567m) 등정에 나섰다.

이날 일행은 유일사~장조봉~대제단~만경사~백담사 방향~철도박물관 경유~눈꽃축제로 한창인 곳으로 하산하는 코스를 선택, 4시간 반의 장정을 마쳤다. 일행은 태백관광호텔 부근 '실비식당'에서 별미를 맛보고 홍보 극성.

### 팔선회 3월 정기모임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3월 4일 자스민기원에서 3월 정기모임을 열고 수담을 나눴다. 이날 모임은 이유환 배주원 신현주 김진석 조석제 이종수 윤태영 강성태 동문이 참석했다.



## 프로기사 5명 '비지땀'

용마이칠기우회 월례대회서 다면기 선보여  
백승엽 등 '기막힌 도전'에 탄성

유창혁 9단 등 프로기사 5명이 용마이칠기우회 기사(?)들과의 대국에서 진땀을 흘렸다.

제27회동기회 용마이칠기우회는 3월 11일 백승이(동문) 개원한 부산수영구 수영동 한국기원 부산수영지부 대국실에서 3월대회(사진)를 열고 백 동문의 개원식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에 온 임선근 유창혁 최규병(이상 9단) 김준영(3단) 김철중(2단) 등 프로기사 5명과 다면기(多面棋·프로기사 1명과 여러 명이 대국)를 벌였다.

이날 유창혁 9단은 황호경·백승엽 동문과, 최규병 9단은 김홍근·윤지한 동문과, 임선근 9단은 신임성·정민화 동문과, 김철중 2단은 허종환·한장호 동문과 각각 지도 다면기를 치렀다.

백승엽 동문은 선전분투하며 기묘

한 수를 두어 유창혁 9단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마지막 마무리에서 유9단의 실수를 유도해 다시 한번 탄식을 자아내게 했고 반면 8집을 역전 승했다. 그리고 윤지한·김홍근 조가 최규병 9단에게 불계승, 신임성·정민화 조와 한장호·허종환 조가 김철중 2단·임선근 9단에게 각각 이기는 이면을 낳았다.

### 기우회장 김태우 선임

이날 기우회는 대국 후 총회를 열고 김태우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김 신임회장은 프로기사 전원을 인근 광안리 생선회집으로 초대해 백승이 동문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었다. 이날 멀리 창원에서 정재호 동문이 참석하는 등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백승이 동문의 개원을 축하했다.

## 大韓風水地理研究會 風水地理師

묘지·주택·아파트 감정전문  
사무실·공장·성명등

- 풍수지리 무료 상담
- 명당자리알선
- 신장·이장묘터 팔분, 살분

### 회장 文喩勵(6회) (구 형방)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88-40번지  
TEL: 051-755-5100  
H.P: 016-529-500

## 용마자동차매매상사

신평자동차매매업단지내(14호)



중고 자동차  
매매 전문업체!

안녕하십니까?

본 상사는 다년간 신차영업에서 다진  
Know-How로 새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  
까지 자동차 Total Market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동문 선후배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표 최규철(37회)

과장 고영민(40회)  
과장 최봉재(40회)

부산시 사마구 신평동 370-6  
TEL : 051) 294-0055  
FAX : 051) 294-0056

네티즌을 위한 정보가이드  
**인터넷라이프**  
月刊 INTER@ET LIFE  
http://www.netizenlife.com

동문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부산 유일의 웹(web) 잡지인 월간 인터넷라이프(Internet life)사의 전무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인터넷을 통한 지식 정보 사회에 적응치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듯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라이프는 저렴한 가격의 고난도 홈페이지 제작외 매월 지면광고, 인터넷 사이트(internet site) 광고 국제신문 지면(월1회) 광고 포함 월 10만원 대의 적은 광고비용으로 동문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보살핌 바랍니다.

위원으로 위촉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수석부회장=김재근(19회·동마산병원장)

△부회장=김진환(20회·대아건설 회장) 최민석(21회·유원산업 회장) 하성일(22회·신광택시 대표) 이상열(23회·파파이스 대표) 이 수(24회·효성중공업 5공장) 한준석(25회·창원농협공판장 66호 대표) 김기성(26회·트원텍 전무이사) 김성주(27회·창원시 기획실) 정영주(28회·정영주안과의원장) 김기민(29회·창원대 교수) 오경태(30회·동일엔지ニア링 대표)

△감사=이 준(15회·부산우유동 물병원장) 박소웅(16회·경남방송아카데미학원장)

△사무국장=정승수(19회·축협 경남회 상무이사)

△총무=이상희(25회·우리정보기술 상무이사).

## 동문이 펴낸 새 책

### '1단짜리 기사에 비친 세상'/영원한 사회부장

#### 이철호(8회) 유고집

고 이철호(8회·전 국제신문 상무이사) 유고집 '1단짜리 기사에 비친 세상/영원한 사회부장' (지구촌간)이 고인의 1주기에 맞춰 최근 발간됐다.

유족과 선후배 동문, 언론계 등 등이 주축이 돼 엮어진 '1단짜리 기사에…'는 고인이 국제신문에 근무하면서 발표한 칼럼들과 다른 신문사의 지면에 기고한 글들을 모은 것.

'명쾌한 논조와 투명한 문체'(김규태 국제신문 논설고문의 평가)로 석류알처럼 채워진 이 유고집에는 제1부 '경제적 시민정신' 주제 아래 '청와대 자축연'·'국회의원부터 깨끗해야' 등 30편이, 제2부 '1단짜리 기사에 비친 세상' 주제 아래 '금의환향과 호들갑'·'비아그라 풍풍' 등 28편이 제3부 '비빔밥과 문화' 주제 아래 '만화의 위력', '전화통 잡고 1시간' 등 19편이, 제4부 '무심과 정상' 주제 아래 '부산의 오기·활력', '장쩌민의 학위 거부' 등 20편 등 모두 97편의 '매서운 글'이 실려 있다.



## 출판기념회

한편 유고집 출판기념회가 3월 23일 호텔롯데부산 연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족을 비롯해 동기생과 선후배 동문, 언론계 등료, 친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고 이동문은 국제신문에서 정치부장·사회부장·동경특파원·두 차례의 편집국장·상무이사·논설고문 등을 역임했다.

# ‘비아그라학회(?)’ 리드로 “바쁘다 바빠”

김영찬 동문 APSIR Newsbulletin 발행 편집장 피선을 환영하며

## 박 영 수

제29회 일본 도쿄 지역 출판부

일본 도쿄 신주쿠의 센츄리하이아트 호텔.

비아그라 출시와 함께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국제학회가 지난해 10월 말 이곳에서 열렸다. 이름하여 ‘제7회 아시아·태평양 성기능장애학회’.

이 학회에 때 맞춰 도쿄 지역동창회 출판부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날아들었다.

“잘 있었나? 우째 하다보이 잘 되고 있는 거라.” 김영찬 동문(29회)이었다. 한국 의사로서는 유일하게 이 학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기 위해 초청되었다는 전갈.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며 센츄리하이아트 호텔 회의장을 찾았다. 회의장 분위기는 온통 축제무드. 이는 학회가 처음으로 펴낸 영문 교과서(?) ‘성기능 장애에 대한 최신지간(APSIR Book Update on Erectile

## 성기능 장애 해결 지침서 발간 축지휘

Dysfunction)’의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APSIR-

R : Asia Pacific Society for Impotence Research).

김 동문은 바로 이 책의 출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사람으로 화제의 중심인물이었다. 책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부문별 저자 선정 및 그 내용을 검증·심의하는 편집위원장 역할을 훌륭히 해냈던 것이다.

국내 의료인 가운데 관련분야 학회 공인 교과서의 일부 단원을 기술한



김영찬 동문 APSIR Newsbulletin 발행 편집장 피선을 환영하기 위해 한승동 김영찬 박영수 동문(이상 29회·오른쪽부터)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눴다.

작은 있지만 편집위원장으로서 책 편찬작업을 주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또 김 동문은 편집위원장

동404호. 051-704-2796

盧相佑(24회)=(주)문화통신공업 대표. 051-852-8851. 부산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5-5. 051-721-3349. 011-864-8851

朴元珪(25회)=대영약국 대표. 051-723-1235. (자택)부산 북구 만덕3동 그린코아아파트 203동1206호. 051-336-9800. 016-551-5204

文成基=경성대학교 자연과학부 생물학 교수. 051-620-4641. (자택)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91(6/1). 051-722-8809

金鐵五(29회)=녹십자의원 원장. 051-727-3355.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벽산아파트 106동1201호. 051-701-7904

薛光烈(30회)=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대진로 1406호. 051-722-0277

金正大(32회)=진우동 대표. 051-722-6070. (자택)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현대아파트 106동 1101호. 051-722-3093

黃聖範(32회)=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 051-462-9504. (자택)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현대아파트 105동402호. 051-722-9687

金大經(33회)=한우잔치 대표. 051-722-5649. (자택)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원남빌라 202호. 051-724-1126. 011-850-5649

丁玄郁(34회)=기장지역동창회 총무. (주)푸르덴셜 생명보험 부지점장. 051-469-3630. (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벽산2차아파트 208동101호. 051-702-0815. 011-889-2315

崔大均(34회)=기장군청. 051-720-5117. (자택)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현대아파트 106동302호. 051-722-0767. (자택)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현대아파트 105동301호. 051-722-4375. 011-873-2875

李鍾澤(35회)=국립수산진흥원 전산실. 051-721-8052. (자택)부산

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3개의 단원을 직접 저술하고 2개 단원의 저술에 공동참여했던 것.

## 새벽까지 ‘동창회’ 가라오케 몸살

학회 일정이 빈 어느 날 저녁, 드디어 도쿄 동문들과 상봉. 동기들(강병철·박영수·한승동)과 정규홍 동문

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김 동문이 신고식 겸해서 저녁을 사는 바람에, 그냥 헤어지기도 쉽지 않던 차에 다시 가라오케에서 몇 곡 부르고 하니 새벽녘이었다.

김 동문은 명실상부 이 학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학회 기간 중 이사회가 열렸는데 학회에서 처음으로 공식발간물인 ‘APSIR Newsbulletin’을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김 동문이 여기서 ‘APSIR Newsbulletin’의 발행 편집장으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Newsbulletin은 회원들에게 성기능 장애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전달하고 임상지침을 수립하여 회원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편집장은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을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APSIR Newsbulletin’의 내용 결정과 원고 작성, 그리고 원고 청탁과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또 그 내용을

## WHO 후원 회의 아시아존 대표로

감수하게 된다.

김 동문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4일 까지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보건기구(WHO) 후원의 세계 성기능 장애 자문회의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유일하게 분과위원장(성호르몬 분과)으로 활약한 바 있다. 김 동문의 학회 활동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학회의 인터넷 사이트 <http://www.apsir.org>를 통하여 볼 수 있다.

## 문복산 정복 용마이칠산우회

제27회동기회 용마이칠산우회 제113차 산행이 3월 12일 영남 알프스 산군 중 북쪽에 있는 문복산(文福山·1013m) 정상~살미동~경주 산내 하산 코스에서 이뤄졌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황호경 동문의 리드로 산행에 돌입했다. 일행은 운문령에서 문복산 정상에 이르는 중간에 작은 산(894m)이 하나 있고 정상을 넘어 살미동(615m)까지 가는 도중에도 5개의 새끼봉우리들이 중간 중간에 서 있어, 힘들게 올라가고 내려 온 뒤 또 오르고 하는 바람에 체력이 많이 소모됐다.

운문령에서 894봉까지는 힘들지 않는 원만한 산행길. 백두대간을 완주한 양태종 동문이 대간 약효가 다 빠졌는지 느긋하게 걸으며 후미로 쳐진다. 2개의 헬기장을 지나 894봉에 오르니 문복산 정상이 흐린 날씨 속에 뿐옇게 보인다. 김황렬 동문이 가져온 깐포도 통조림으로 체력을 보충한 후 이를 악물고 정상에 올랐다.

침실식사후 일행은 낙엽이 수북하고 잡목 앙상한 기지를 헤치고 너털에 회초리 맞아가면서 살미동에 도착했다. 가파른 길을 택해 하산했다.

## 제 12 회

崔昌秀=더원중학교 주임교사로 지난 2월 명예퇴임. 수고하셨습니다

權廷相=삼덕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051-257-0072

金吉洙=(자택전화변경) 0523-375-3051

金富煥=지난 2월 부산시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35년 부산시 공직에서 퇴임

金容鎬=반여중학교 교장. 3월 21일 경문회 정기총회를 다래한식에서 가짐

金準鐵=협성검정(주) 대표이사. 3월 16일 금화초밥에서 중서영도 지역 월례회 개최

朴文基=(사무실이전)부산 사하구 구평동 19. 051-266-0975

朴正潤=구례 영빈회관 대표. 3월 12일 인천에서 차남 결혼

安商敬=부인 한창희여사 2월 28일 별세

李圭植=세일프라자 회장. 3월 5일 차남 결혼

張東錫=부경대학교 교수. 3월 3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자들의 수선으로 학술논문집 출판기념식 가짐

趙正濟=전 해양수산부 장관. 2월 23일 해양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수여식 가짐

韓春培=부산과하고등학교 교장.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9동 LG 아파트 114동 2501호. 051-752-4104

李春相=(개업)포타도. 051-582-9952

## 제 14 회

金德幸=청마합동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8-8 삼양사빌딩 406호. 051-441-2316. (자택) 051-621-2877

文雲龍=(주)한국쉘 상무이사. 051-625-5133. 지난 3월 10일 서울

## 어디서 무엇을

시 해운대구 중2동 1485-10 영림 1차 202호. 051-743-5528

韓昌有(38회)=영동횟집 대표. 부산 기장군 이천리 198

박보현(45회)=롯데사이트 야구단 투수. (자택)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현대아파트 106동 308호. 051-722-0048

## 춘천지역동창회

宋永吉(12회)=춘천지역동창회장 중앙상사(합) 무한책임사원(대표). 0361-263-7041. (자택) 0361-254-7501. 011-378-7501

金功(14회)=김공피부비뇨기과의원. 0361-253-3029. (자택) 0361-252-8215

金在桓(18회)=한림대 영문과. 0361-240-1224. (자택) 0361-253-8692

玉圭城(20회)=방송통신대학 강원학습관 관장. 0361-244-5560

鄭基文(23회)=강원대 경제학과. 0361-250-6126. (자택) 0361-262-2483

金知洪(24회)=강원대 산림경영학과. 0361-250-8333. (자택) 0361-51-0137

宋仁培(25회)=혜성의원. 0361-242-6401. (자택) 0361-242-6402

丘在午(26회)=강원대 건축과. 0361-250-6217. (자택) 0361-54-8498. 011-371-6217

金永明(26회)=한림대 정치외교학과. 0361-240-1351. (자택) 0361-261-5084

宋承哲(27회)=한림대 영문과. 0361-240-1228. (자택) 0361-251-8976

전진학(28회)=전진학치과의원. 0361-253-4877. (자택) 0361-262-4866

金辰泳(30회)=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0361-250-6713. (자택) 02-9478

## 제 8 회

## 제 10 회

崔誠烈=모친한테 급히 전화연락바람. (서울 불광동. 02-385-1928. 최성운 동생)

吳剛旭=부산곡물협회 회장 연임

李奉源=부산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상담실장 취임

金琪祐=(주)엔텍 상무이사

姜聖鎮=(자택)부산시 북구 화명동

362-1935 경남아파트 104동 2002호. 051-362-1935

許澤元=(자택)부산시 사하구 당리

동 삼창아파트 1동 1502호. 051-

204-0915

黃尚祚=(자택)부산시 남구 대연2동

1609-38 (12/4). 051-635-9478

(6면에서 계속)

전쟁기념관에서 차녀 결혼. (자택)  
051-643-6767  
李載仁=4월 1일부로 인터라이프(월간) 전무이사로 취임.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336-18 동승빌딩 4층. 051-851-0012. (자택) 051-324-8540

## 제 15회

韓海秀=4월 22일 오후 1시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장녀 윤주양 결혼

강정남=4월 23일 12시 30분 금강예식장에서 차녀 현주양 결혼

金吉弘=4월 29일 오후 2시 목화예식장 3층에서 차녀 숙주양 결혼

韓桃根=5월 6일 오후 2시 대림예식장 4층에서 차남 상우군 결혼

曹圭增=3월 23일 모친 별세. 부산 영락공원에서 출상

權大植=3월 18일 유림호텔에서 부부회합연 가집. 0351-865-3667

金雄世=리눅스 시큐리티(주) 부회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 두산빌딩 3층. 02-6248-1100

金仲基=신현중학교 교장으로 전보. 02-3421-0631

沈揆東=(자택이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39 LG아파트 102동 1102호. 02-521-9087

李理國=에이콤아시아(주) 고문. 인천 모대학에 컴퓨터 강의 출강. 02-562-2700

李在元=부광약품(주) 대표이사 사장 취임. 경성대학교와 동대학원 임상약학과 교수 겸직. 02-817-7537

張浩早=5월 5일 오후 3시 서울 강충동 소피텔앰배서더 호텔 웨딩홀에서 딸 현정양 결혼. 02-974-2501

鄭英甫=5월 20일 오전 11시 영학교회에서 장녀 결혼. 02-2613-2633

鄭幸男=(자택이사)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빌라맨션 1401호. 02-795-5230

韓秀夫=서울대 치대교수 4월 6일 엠베서더호텔에서 딸 결혼

韓振出=에이원창업투자(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10 야쿠르트빌딩 3층. 02-549-9001

## 제 17회

鄭良夫=동기회장. 동의대학교 공대건축공학과 교수. 051-890-1621

姜株水=동기회 총무. 동아회보약국장. 051-256-5362

全盛光=동기회 총무. 동양화재보험 닥형대리점. 017-551-5285

金永典=해운대소아과의원장. 2월 19

일 롯데호텔에서 장녀 결혼  
金鍾大=부산교도소 의무부장. 2월 21일 모친 별세  
裴敏夫=국보기업(주) 대표이사. 3월 4일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장남 결혼

## 제 20회

朴炳千=신흥모직공업(주) 전무이사. 4월 22일 오후 3시 천포교회에서 딸 윤정양 결혼  
蔡京錫=오복식품(주) 대표이사. (자택이사)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유아파트 101동 806호. 051-266-6966

## 제 24회

李載能=경위승진. 사하경찰서 수사2반장. 051-208-2724  
李賢謙=코크스 개업. 051-556-0141  
梁寅錫=동부지청 앞 법무사무소 개소. 051-781-7007  
林炳用=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부원장 취임. 051-240-7726  
蔣敏在=남성혜운(주) 이사 승진. 051-469-9152  
鄭永錫=금정구 부구청장. 동의대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051-519-4100  
周点權=삼송초밥 개업. 051-245-7870  
崔明振=(주) 세진강진 대표이사. 051-504-8825  
崔太榮=무궁기원 개업. 051-555-5981  
韓承哲=부민동 고등법원 앞 법무사무소 개소. 051-254-4466  
黃培性=선일페이트 개업. 051-861-4294

## 제 25회

姜龍珠=3월 24일 강용주법무사 사무실 개업. 부산 서구 부민동 영남사우나 옆. 051-293-9300~1  
許永亨=나산 관리본부장 상무이사. 4월 3일 모친 별세  
許仁局=4월 4일 모친 별세  
金義章=4월 9일 부친 별세  
車浚吉=엘트웰 부산지사. 018-288-4546

## 제 26회

趙泰雄=2월 28일 부친 별세  
金澤喨=3월 7일 장인 별세  
辛容奉=3월 10일 모친 별세  
朴點根=약수탕.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237. 0525-329-2042  
임영재=(주) 월드선물&옵션 대표이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빌딩 2206호. 051-501-8118  
高永大=금창산업개발(주) 이사. 부

## 어디서 무엇을

산 중구 남포동6가 18. 051-254-2764  
高圭錫=제일제당 부산2공장 공장장. 부산 사하구 다대동 370-14. 051-262-3016

## 제 27회

金大洙=용파기업(주) 대표이사. 0562-220-6211. (자택)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청구아파트 101동 609호. 0562-278-4633  
金炳玉=부산과학고등학교 수학교사. 051-897-0006. (자택) 부산 동래구 명장1동 461 일양아파트 B동 1302호. 051-523-6586  
金在燮=삼성증공업 생산관리팀 부장. 0551-250-7431. (자택)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현대2차아파트 504동 502호. 0551-248-8102  
金圭賢=해인한의원 원장. 052-293-8405. (자택) 울산 남구 신정3동 200-100. 052-272-0085  
金大鵬=K.S.VAN. 대표. 051-557-6668. (자택) 부산 북구 만덕3동 한신그린코아아파트 105동 1107호. 051-343-1555  
金敏洙=대구효성가톨릭대 자연대학 조경학과 교수. 053-850-3187. (자택) 대구 동구 용계동 422 백자맨션 1동 402호. 053-985-0594  
南英福=대구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053-850-6062. (자택) 대구 수성구 매호동 협화아파트 103동 1005호. 053-791-0169

崔仁誠=형제정밀기계(주) 전무이사. 053-582-7744. (자택)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태왕아파트 101동 1207호. 053-639-0319  
金孝燮=삼성전자(주) 정보기전부문 부장. 0331-200-1320. (자택)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6동 1108호. 02-3452-1766

李源哲=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병원장. 02-3416-9711. (자택)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25동 101호. 02-446-5134  
鄭宰昊=노동부 경남창원지방 노동사무소 관리과장. 0551-275-7630. (자택)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꿈마을 삼환아파트 1005동 1003호. 032-667-5668

梁太種=동아대학교 서양어 문학부 (독일어) 교수. 051-200-7097. 著著修舌辛學 이야기」발간

文斗潔=동기회장. 문두찬피부과의원장. 051-816-5337. 3월 10일 ~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컨벤션센터 피부학회 학술회의 참석

李縵春=남산내과신경병원 병원장. 051-285-7854

金榮=교육부 중등장학사. 051-860-0267  
金光萬=호텔롯데 11층 롯데로얄빈센터 피부과 이천. 051-810-8130

金再憲=자혜내과의원장. 부산 수영구 망미1동으로 이전. 051-759-0284~5  
朴東一=동의대학교 한방병원장.

의학박사 내과전문의.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4-34. 051-582-9461

~4. (자택) 부산 금정구 구서2동 부영 벽산아파트 101동 801호. 051-518-5553  
韓成福=대산치과의원장.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례리 225-4. 0552-583-8110

鄭賢宇=우성혜운(주) 운송사업부장. 02-398-0523. (자택이사)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우성아파트 305동 707호. 02-847-0161  
趙峯寬=부경대학교 전기제어계측공학부 교수. 051-620-1434. 기장 메디칼(주) 벤처기업 창업. 051-623-2743

李相龍=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051-636-0095  
申敏鎮=대우해운(주) 대표이사. 051-462-4066. (자택) 부산 연제구 거제2동 917 대우아파트 101동 1902호. 051-506-0797

鄭祥坤=국세청 정세과 과장. 02-397-1341. (자택)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301동 1306호. 02-6242-6703  
孔冀烈=동서대학교 국제관광과 교수. 051-313-2001. (자택) 부산 사상구 주례3동 럭키아파트 14동 903호. 051-327-3475

權性健=해성산업 총무부장. 02-528-1255. (자택) 서울 도봉구 쌍문4동 54 성원아파트 107동 705호. 02-6221-1105  
金慶辰=동기회 총무. 에덴볼링센타. 영진빌딩 전무. 051-203-0224. (자택) 부산 해운대구 중2동 유진달맞이빌라 A동 101호. 051-741-5617

金尚鍾=실라기획 대표. 051-502-0529. (자택) 부산 금정구 선동 338 (9/1). 051-512-0440  
徐相虎=총무고등학교 교사. 0557-642-9101. (자택) 경남 통영시 용남면 종달리 청구아파트 206동 1002호. 0557-648-3037  
崔源孝=김천농장 대표. 0547-435-3123. (자택) 경북 김천시 남산동 184-58. 0547-430-1036

崔泰龍=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교수. 0591-751-5769. (자택) 경남 진주시 하대동 현대아파트 102동 104호. 0591-757-6833

鄭宰昊=노동부 경남창원지방 노동사무소 관리과장. 0551-275-7630. (자택)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꿈마을 삼환아파트 1005동 1003호. 032-667-5668

梁太種=동아대학교 서양어 문학부 (독일어) 교수. 051-200-7097. 著著修舌辛學 이야기」발간

文斗潔=동기회장. 문두찬피부과의원장. 051-816-5337. 3월 10일 ~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컨벤션센터 피부학회 학술회의 참석

李縵春=남산내과신경병원 병원장. 051-285-7854

金楷坤=김안과의원장. 0551-298-1176. 경남 마산시 자산동 9 한백힐사이드빌라 401호. 0551-221-8238  
崔今錫=삼성증공업 구매과장. 0551-280-6788. 경남 창원시 용호동 롯데아파트 15동 305호. 0551-281-9548

丁徹在=굿모닝증권 창원지점장. 0551-285-7854

051-867-5165. (자택이사) 부산 해운대구 두산2차 202동 604호. 051-702-3017  
李相雲=지난해 11월 8일 부친 별세  
김수환=지난해 12월 31일 부친 별세  
趙允濟=1월 26일 부친 별세  
梁正福=2월 25일 부친 별세  
金龍植=세인치과. 051-334-2875  
韓輝哲=동래한빛치과의원장. 051-525-7509. (자택) 부산 해운대구 좌동 건영1차아파트 307동 1002호. 051-703-2859  
崔文星=메리들병원 신경외과과장. 051-461-2437  
吳世鏞=한일기전 대표이사. 051-304-1828  
金敏鎬=김민호치과의원장. 051-817-0066  
정문상=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051-200-7476  
李龍南=주례여고 수학교사. 051-312-3061. 019-591-6636  
朴英煥=천마(주) 무역부. 051-851-2700~3  
朴基贊=진홍상사 상무. 051-242-0682. 011-860-7869  
洪鳳宅=LG화재보험. 051-462-7658. 011-838-4689  
鄭佶=건양선박설계 대표. 051-253-4671  
鄭鍾琦=한국아쿠르트 본사 마케팅 팀장. 02-3449-6181. (자택) 부산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105동 202호. 051-755-1758  
金漢一=김한일내과의원. 부산 영구 청학2동 222. 051-417-2172  
金晚熙=(주) 신신기계 이사. 051-727-5300~4  
朴熙律=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306-8. 051-242-3902. 019-513-3902  
朴性哲=부산지법 형사3부 부장판사. 051-240-1222  
申弼均=한국감정원 마산지점. 0551-223-5121  
李秀敦=부산시청 공보계. 051-888-5212  
李忠源=PSB연예아카데미 관리이사. 051-853-9669  
鄭大鉉=정치과의원장. 051-702-7744. (자택) 부산 해운대구 좌동 건영아파트 307동 1602호. 051-701-1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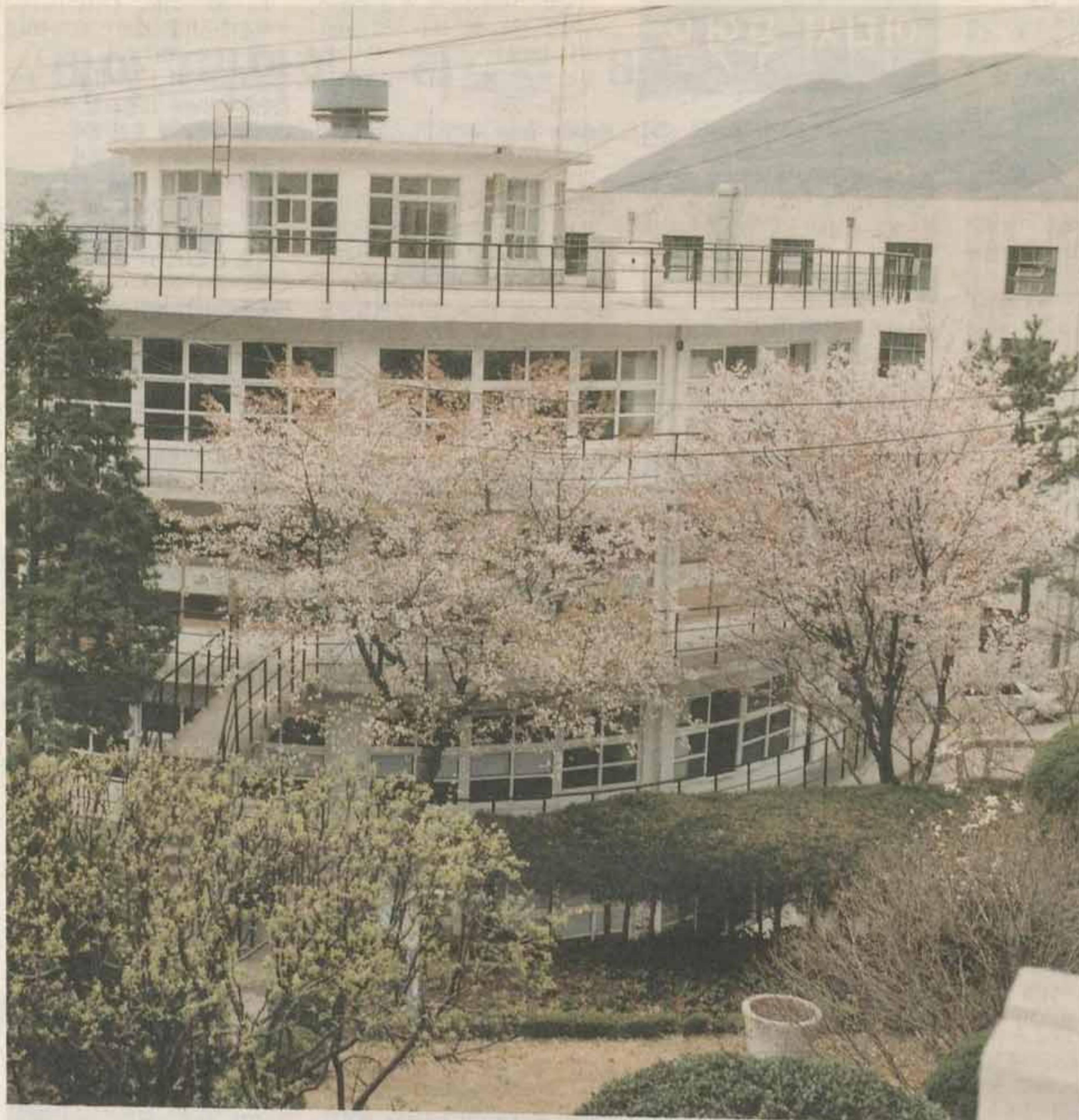
## 제 30회

金楷坤=김안과의원장. 0551-298-1176. 경남 마산시 자산동 9 한백힐사이드빌라 401호. 0551-221-8238  
崔今錫=삼성증공업 구매과장. 0551-280-6788. 경남 창원시 용호동 롯데아파트 15동 305호. 0551-281-9548

丁徹在=굿모닝증권 창원지점장. 0551-285-7854

## 제 21회 동기회 임원 명단

총동창회 부회장	강 창 수
----------	-------



## 기별야구대회 '우승'전략대책 강구

### 제44회 새 회장 배종세

제44회 동기회는 최근 부산 서구 동대신동 '고전한식뷔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배종세 동문(광동설비 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종혁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개선을 통해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배 신임회장은 김영주 동문을 총무로 지명했다. 40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본부의 기별야구대회, 용마테니스대회, 용마의 밤 행사 등

에 적극 참여, 동창회 활성화의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을 결의 했다.

특히 오는 4월30일 용마테니스대회에 선수단을 출전시키고 뜨거운 응원전을 펼며 기별야구대회 우승을 위한 선수단 훈련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제26회 새 집행부

#### 최현 신임회장에

제26회동기회는 2월25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크리스탈뷔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현동문(최

### 제8회 산우회장 조봉석

제8회동기회 산우회는 3월31일 부산 동구 범일동 '금강뷔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봉석 동문(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치과의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장경재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동문—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임원을 개선했다(사회 김태년 총무).

최신임회장은 인사말에 이어 장경재 직전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회장=최현

△수석부회장=김성환

△총무=박복수

△서클회장=김태년(26학) 최윤림

(26골) 장종언(26기) 김상현(26테)

△서클총무=이성복(26학) 김광대

(26골) 권해국(26기) 신재호(26테).

△회장=한휘철

△부회장=김민호 오세용 정문상

이용남 박영환 박기찬

△감사=이강훈

△총무=권두진.

### 재경29회 김홍기 회장

제29회 재경동기회는 지난해 12월 9일 뉴월드호텔 연회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홍기 동문(삼일회계법인 회계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정기조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을 개선했다.

김신임회장은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기생들의 결집력과 높은 참여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등산 레저용품 전문점

## 자연이 나를 부를 때... 그곳에는 Coleman

남진현(제19회)

강국상(제19회)

지용섭(제26회)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5-2

TEL : 051)248-2222

FAX : 051)248-2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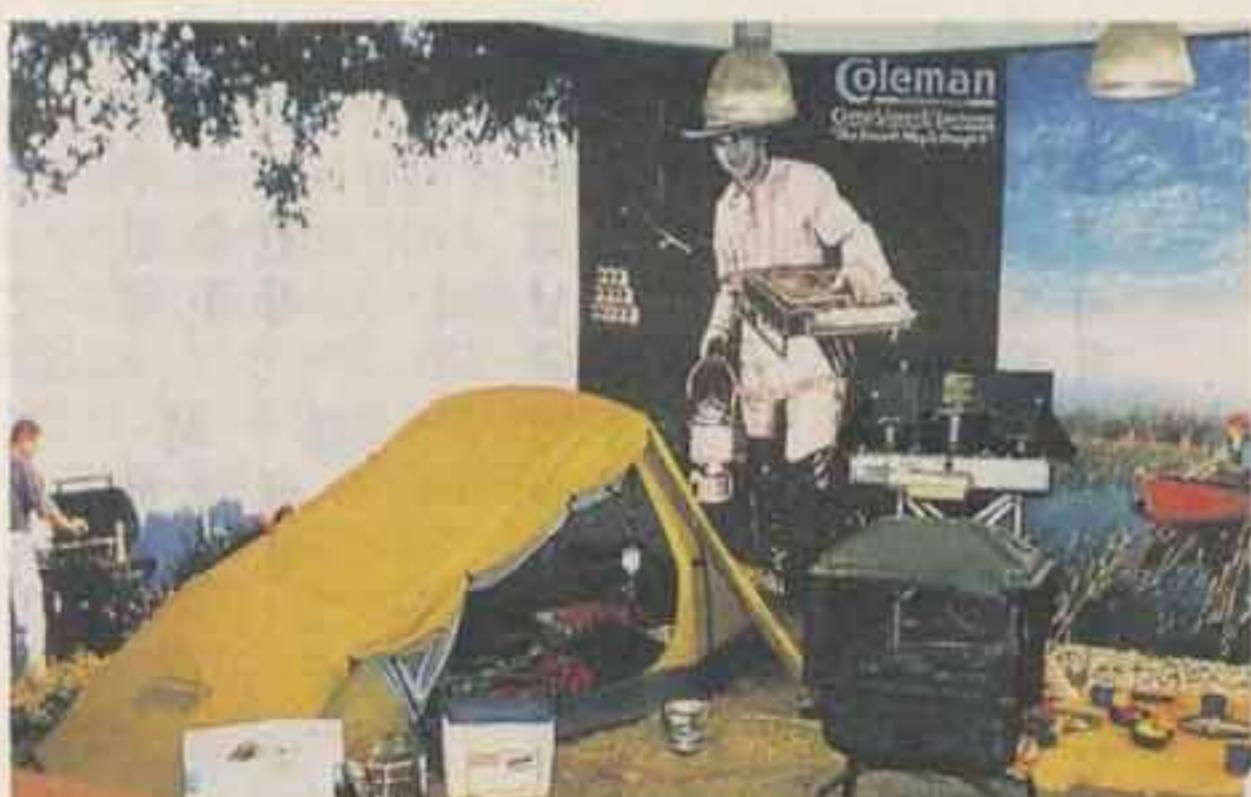
Coleman  
(옛. 강씨인삼방)

부산호텔  
외환은행

한빛은행

중앙동  
이면도로

**Coleman**



Coleman은 (주)신양 대표 김영복(제19회)동문이 독점수입하는 세계 굴지의 전문 등산 캠핑 용품 브랜드입니다

용마춘추

가파른 구더산길, 모두가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서 등교하던 그 비탈길. 떨거리 떨거리 털털... 아침마다 병정들의 행군 같은 그 발걸음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지난 50년대에 재학했던 경고맨들이라면 모두가 잊지않고 있는 우리들의 신발 이름하여 위대한 '똥구두 행렬'이었다. 당시 운동화나 백고무신, 농구화도 있었지만 유독 똥구두를 선호했던 것은 아마 발이 아주이주 편했고,

더위기  
벗내기와는 달을  
쌓고 공부에만  
열중했던 교풍  
때문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국제시장

뒷골목이나

고물상에서

흘러나와 신기료장수가 손질해 팔던 똥구두를 사서 신었다. 그것이 발에 맞지않아 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것도 용케 신고 다녔다(신었다기보다 질질 끌고 다녔지).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 그 때 그 똥구두를 다시 한번 신어봤으면 하는 동문들은 없을까? 한번도 뒤지 않아 구두코가 허옇게 벗겨지고, 하도 많이 신어서 너덜너덜 닳아빠졌지만 잠잘 때 빼놓은 항상 함께 했던 그리운 그 '똥구두'여!

세월이 정말 좋아졌지. 재학생들아, 너희들이 '똥구두'를 아느냐?"

그 똥구두 덕분에 경남고 출신들은 모두 다리통이 긁어졌고, 뱃심까지 두둑해져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나친 과장은 아니었다. 근데, 그 당시엔 왜 '똥구두' '똥가방' 등 '똥'자를 선호했을까, 더 좋은 이름으로 불렸어도 좋았을 텐데 ... 그것이 궁금하구나.

### '한국의 두뇌' 배출하는 모교의 응자

◀ 모교 경남고는 지금 신록을 피우고 있다. 교정은 만발한 벚꽃을 비롯해 갖가지 꽃과 수목들의 향기 속에서 미래를 예비하고 '한국의 두뇌'를 배출하는 전당의 응자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